



Lions Clubs International
FOUNDATION

재해 구호: 미래에 대한 희망



절박한 인도주의적 위기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아침,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 섬은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340만 명의 주민들은 절박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는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80년 만에 최악의 태풍으로 허리케인 이르마가 섬의 북단을 통과한 지 2주만에 상륙하여 100만 명의 주민들이 정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가정과 섬의 기반시설이 입은 피해는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허리케인 마리아를 지켜보면서, 미리암 바스케즈 라이온의 마음 속에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산후안에 있는 라이온스 안구은행의 집행이사인 그녀는 장기기증자들의 온정어린 기부로 기증받은 각막은 얼음으로 포장해야 하고 예비 발전기가 설치된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예상한 만큼 강력했다면, 안구은행의 작은 발전기는 장기간의 정전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재단(LCIF)은 푸에르토리코 재해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51복합지구에 US\$100,000의 기금을 지급했습니다. **국제재단 웹사이트 lCIF.org/Grants**를 방문하시면 라이온스 지구의 대규모 인도주의 사업 개발과 시행을 지원하는 교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에 대항



카리브해 지역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재해 발생 전 일상적으로 따르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십시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십시오. 건조식품, 물, 건전지를 비축해 두십시오. 주택과 아파트들이 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화분과 테라스에 있는 느슨한 가구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덧문은 걸쇠로 잠그고 물이 새는 창문과 문틈에 타올을 넣어 주십시오. 체크리스트에 따라 라이온스 안구은행과 본인의 집을 열심히 점검하면서 미리암 바스케즈 라이온은 임신8개월인 자신의 딸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임산부가 푸에르토리코에 머무는 것이 올바른 결정일까?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있는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그녀에게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녀의 건강보험이 섬 밖의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연재해에 맞서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반면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을 알고 있는 마리아는 바스케즈 라이온 내외에게 태풍이 지나가는 밤에 그녀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어머니가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바스케즈 라이온 내외는 가방을 정리하고 푸에르토리코 전역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장면처럼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일기예보를 시청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슈퍼마켓도 현금인출기도 전기도 없었습니다.”
- 미리암 바스케즈 라이온, 사바나 라나 라이온스클럽

희망 나누기

전 세계 어느곳에서든 재해가 발생하면, 라이온들은 국제재단을 통해 긴급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긴급 자금은 US\$10,000이며, 피해 주민들의 삶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당장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제재단은 최대 US\$250,000의 주요 재해 기금을 지급합니다.

자연 재해가 발생할 때 라이온들이 보통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카손드라 버드 LCIF 인도주의 프로그램과 과장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카손드라 버드 과장은 푸에르토리코의 라이온들로부터 아직 소식을 듣진 못했지만, 뉴스 발표를 통해 허리케인 마리아가 주요 재해 기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라이온들도 역시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발생하고 얼마되지 않아 라이온들은 주요 기금 마련이 어려운 회복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푸에르토리코 이름으로 국제재단에 재정적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라이온들이 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마침내 버드 과장 및 교부금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들과 연락했을 때, US\$100,000을 송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섬의 많은 지역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국제재단은 라이온들이 기금을 수령할 은행의 영업이 재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라고 버드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국제재단은 생명 구호 및 유지를 위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연료탱크를 채우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주유소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재단은 하나의 장애물을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그들을 기다리는 다른 장애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완전히 바꿔놓은 후,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펠릭스 카마초 아얄라 지구총재는 그가 사랑하는 고향이 불에 탄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 때 새소리로 메아리치던 아침은 이제 성당처럼 조용합니다. 밤에는, 푸에르토리코의 상징인 코키 개구리의 울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이틀 후, 그는 미리암 바스케즈 라이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산후안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비상대책센터에 이미 와 있었고, 그 곳에서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FEMA) 대표를 만났습니다. “컨벤션 센터에 있는 동안 저는 푸에르토리코를 위해 쇄도하고 있는 지원이 즉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지원품을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야할지 알 수 없어서 분배를 위한 네트워크는 거의 마비상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LCIF 긴급자금으로부터 기금을 수령한 후, 바스케즈 라이온은 지원품의 지역 분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의 지구총재 3명(동부의 아얄라 총재, 중부 산악 지역의 에밀리오 콜론 로드리게스 총재, 서부 해안 지역의 크리스티노 헤르난데스 총재)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속지구 라이온들에게 지원품이 오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라고 아얄라 총재가 말했습니다. “라이온스 조끼에 땀을 흘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일을 마치고, 아얄라 총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도시의 새로운 지역에 불빛이 켜지는 것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피해 복구에 진척을 보여주는 신호였지만,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도시의 지역들은 그에게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허리케인 마리아는 916억1천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히고 2,098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는 2018년 2월말까지 2,9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푸에르토리코의 라이온들에게는 매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태풍이 가라앉고 2주 후, 바스케즈 라이온의 딸 마리아는 산통을 느꼈고 심각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남자아이로 후아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6주 동안 집중치료실에서 생활했습니다. 반면 마리아의 생명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라이온들은 산후안에서 진행되는 마리아의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섬 전역에서 도착했습니다. 교회는 설 수 있는 자리까지 가득 채워졌습니다.

“

마리아는 라이온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웃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라고 바스케즈 라이온이 말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그녀의 성품 중 하나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딸을 바르게 키웠다는 것을 알게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

바스케즈 라이온이 생각하기에 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의 슬픔을 라이온으로서 지역사회 봉사로 돌리고 태풍의 잔해로부터 그녀의 나라를 일으켜세우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1년 후, 30만명 이상의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섬을 떠났습니다. 몇몇 가족은 부서진 집을 재건축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방 하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친척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고난에 빠진 이들의 회복력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군분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열정을 갖고 있는 라이온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도움을 청할 때 그들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라이온들은 어려움에 처한 푸에르토리코의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51 복합지구의 라이온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지역을 계속 확인하고 허리케인 마리아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그들의 삶을 다시 재건하도록 도와 줄 봉사의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그들의 나라가 그렇듯 아름답고 친절하며 마음이 따뜻합니다. 모든 라이온들이 기부와 헌신으로 이웃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재단(LCIF)은 더 밝은 내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lCIF.org/BE100



CAMPAIGN | 100
LCIF • EMPOWERING SERVICESM

lCIF.org/BE100을 방문하시면 캠페인 100이 재해 구호 활동에 얼마나 깊게 참여하고 있는지, 언제 어디에서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라이온들의 자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 LCIF 재해 구호 기금에 기부하십시오.

지금 기부하십시오!



Lions Clubs International
FOUNDATION

국제라이온스재단
300 W. 22nd St. | Oak Brook, IL 60523-8842 USA
+1.630.571.5466 | lCIF.org/BE100